



김기훈 “볼넷 두려움 벗었다”

LG전 1회 4실점 ‘1회 징크스’ 딛고 시즌 2승
“KIA 짝은 마운드 치열한 경쟁 좋은 교과서
선배들 격려에 성장...자신감 있게 승부하겠다”



피칭을 하겠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김기훈에게는 운수 좋은 날이었다. 이날도 김기훈은 ‘1회 징크스’를 넘지 못하고 1회에 4점을 줬다. 2회에도 선두타자 정주현에게 좌측 2루타를 허용한 뒤 5번째 실점을 했다. 2회까지 기록된 투구수는 46개. 전날 4-17 대패에 이어 다시 일방적인 패배가 예상된다. 하지만 결과는 유민상의 역전 2타점 2루타를 앞세운 KIA의 10-5 역전승이었다. 불안했던 초반을 넘긴 김기훈이 5회까지 마운드에 올랐고, 이어진 공격에서 KIA가 7-5 역전에 성공하면서 김기훈은 승리투수 요건을 갖췄다. 타자 형님들이 이후 3점을 보태줬고, 박준표를 시작으로 하준영-전상현-문경찬으로 이어진 ‘형님 마운드’는 무실점 퍼레이드로 ‘막내’에게 2승을 안겨줬다.

투타 지원이 있었지만, 김기훈이 무너지지 않고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를 수 있었던 승리였다. 김기훈은 “초반 점수를 많이 준 상황에서 어떻게든 5회까지 버티려고 맘 먹었다. 감독, 코치님이 믿고 올려주셔서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1회’라는 숙제는 남았지만 경험을 쌓으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부분은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기훈은 “1회가 워낙 불안하니까 여느 이닝과 달리 생각하고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다”면서도 “초반에는 던지면서 둔한 느낌이 있었지만 3회 지나면서 좋아졌다. 3회부터 체인지업과 슬라이더를 섞어 던지니까 더 나아진 것 같았다. 다음 등판 때는 직구 위주에서 벗어나 섞어서 던지겠다”고 언급했다. 볼넷에 대한 두려움도 털어냈다. 특히 3회 선두타자 폐게로와의 승부는 김기훈의 5회를 있게 한 결정적인 순간이다. 김기훈은 볼 3개를 연달아 던져 불리한 볼카운트에 몰렸지만 결국 헛스윙 삼진으로 폐게로를 돌려세우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련했다. 김기훈은 “그냥 가운데만 보고 세게 던지려고 했다”며 “요즘은 볼넷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서재응 코치님이 ‘볼 넷 더 줘도 된다.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격려해주신 덕분에 볼넷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 불리해도 신경 안 쓰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기훈은 이상인 양현종을 보면서 그라운드 안팎에서 많은 걸 배우고 있다. 또 ‘젊은 마운드’의 치열한 경쟁을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다. 천 마디 말이 아닌 선배들의 행동과 결과가 김기훈을 키우고 있다. 김기훈은 “씩씩하게 던지는 선배님들을 보면 부럽다. 나도 저렇게 던져야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왜 자신 있게 던지지 못했는지 많은 생각을 했다. 내 공이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다. 앞으로는 자신 있게 승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형님’들이 키우는 KIA 타이거즈의 ‘막내’ 김기훈이다. KIA 김기훈은 지난 7일 LG 트윈스전에 선발로 나서 시즌 2승에 성공했다. 경기가 끝난 뒤 김기훈은 “(양)현 종선배님이 ‘무실점해도 승리투수가 안 되는 날이 있고, 5실점 대량 실점해도 승리투수가 되는 날이 있다’고 말했는데 오늘이 그 날인 것 같다”며 “선배들께 너무 감사하고 다음 등판 때는 제가 선배님들 도와드릴 수 있는

덕아웃 T 특특

무전제 ‘도루’ 박찬호 “공짜다 생각하고 땀 거죠”

▲커플 번호인데 기운 다 가져왔나 봐요 = ‘예비역’ 박준표는 제대 후 첫 시즌을 31번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다. 입대 전 박준표가 썼던 38번은 임기영이 쓰고 있다. 박준표가 31번을 선택한 이유에는 경찰청에서 각별했던 ‘군 동기’ 정수빈(두산)이 있다. 박준표는 “수빈이 형이랑 커플 번호다. 그런데 올해 내가 수빈이 형 기운을 다 가져온 것 같다. 올해 형 성

적이 좋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정수빈은 7일까지 타율 0.241, 27타점 47득점에 그치고 있다. ▲터너만 잘 던져주면 됩니다 = KIA는 8일 한화와의 경기를 위해 전날과 똑같은 라인업을 작성했다. 전날 김선빈이 홈 슬라이딩 도중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교체됐었고, 박찬호는 LG 여건국

의 직구가 머리를 맞았지만 두 선수 모두 큰 이상이 없어 선발로 출장했다. 두 선수의 몸 상태에 이상이 없다고 언급한 박홍식 감독 대행은 경기 전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타순은 어제와 동일하다”며 “터너만 잘 던져주면 된다”고 웃었다. ▲‘공짜다’라고 생각하면서 땀 거죠 = 사람들은

두 번이나 놀라게 한 박찬호다. 그는 LG와 대결한 지난 7일 9-5로 앞선 8회 2사에서 다섯 번째 타석에 섰다. 이날 선발 출전 선수 중 유일하게 안타가 없던 박찬호의 안타를 기대했던 순간, 경기장에는 아쉬운 탄성이 나왔다. 여건욱의 직구가 그대로 박찬호의 머리를 강타한 것이다. 여건욱이 헤드샷으로 퇴

장당한 뒤 박찬호가 우려의 시선 속에 1루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뒤 박찬호는 2루를 홈치면서 다시 관중을 놀라게 했다. 박찬호는 이어진 황윤호의 적시타 때 홈까지 밟아 득점도 올렸다. 박찬호는 “헬멧이 좋아서 괜찮았다”며 “맞고 나가면서 아 이닝에 무조건 뛰어야겠다 생각했다. 경계 절대 안 할 거라고 판단해 ‘공짜’라고 생각하며 뛰었다. 도루 한 개 한 개가 소중하다. 도루왕을 하고 싶다. 40개 정도는 하면 1등 할 것 같다”고 도루왕에 욕심을 보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승점 50점 고지 넘고 우승 가자~

K리그2 23R 내일 부천 원정
24R 부산 대결 전 승점 벌려야

프로축구 광주FC가 승점 50점 고지를 목표로 부천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오는 10일 오후 8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FC1995와 2019 K리그2 23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14승 7무 1패(승점 49)의 전적으로 리그 선두 질주를 하는 광주에 앞선 라운드 전남드래곤즈와의 경기에서는 1-1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사령탑이 교체된 전남의 매서운 기세 속 펠리페의 골이 비디오 판독 결과 취소되는 등 불운도 따랐다. 하지만 어려운 경기 속에서도 승점 1점을 보낸 광주는 이번 부천 원정에서 승점 50점 고지에 도전한다. K리그2 통산 23라운드에서 50점을 넘은 팀은 대전 시티즌(2014)과 경남FC(2017)으로, 두 팀 모두 조기 우승으로 승격의 꿈을 이뤘다. 이번 경기는 24라운드 부산아이파크와의 경기에 앞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요한 경기이기도 하다. 앞선 라운드에서 부산이 승리를 하면서 1위 광주와의 격차가 승점 7점 차로 좁혀졌다. ‘결승전’ 같은 부산과의 경기에 앞서 광주는 격차를 벌리고 자신감을 채워야 한다. 이번 경기에서 중원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박정수가 경고 누적으로 나서지 못하며, 임민혁은 전남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 대체 자원으로는 최근 교체로 숨 고르기를 한 부 주장 여름과 여봉훈이 있다. 또 신인 용병 하정요도 출격 대기 중이다. 박진섭 감독은 “무더위 속 선수들의 체력저하가 심한 만큼 로테이션을 활용, 휴식과 함께 집중력을



광주FC의 이요뜸이 지난 6월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 15라운드 부천FC와의 홈경기에서 프리킥 선제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높여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는 부천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 역대 전적에서 8승 4무 3패로 앞서 있으면 시즌에도 5득점 1

실점으로 2승을 쟁겼다. 반면 부천은 최근 2경기에서 막판 뒷심 부족과 공격력 부재라는 고민을 남겼다.

광주가 우위를 이어 부천을 꺾고 승점 50점 고지에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이한도·전남 정재희 K리그2 22R ‘베스트 11’



‘엘로더비’ 무승부를 이끈 광주 이한도와 전남 정재희가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8일 2019 K리그2 22라운드 베스트 11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남과의 맞대결서 전반 추가 시간 선제골을 넣은 광주 이한도가 수비수 부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안정된 수비로 광주의 1위 질주를 이끌었던 이한도는 이날 시즌 첫 골이자 통산 두 번째 골에 성공하면서 환호했다. 또 0-1로 뒤진 후반 10분 골을 넣으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전남 정재희도 공격수 부문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광주와 전남은 이 경기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